

# 장성 친환경 농업 육성 체계 확 바뀐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따른 부작용 최소화

### TF팀 구성...현장 문제점 파악·다양한 연구

장성군이 최근 문제가 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체계와 관련 대책 개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환경농업 개선대책 TF팀을 구성해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을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자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친환경농업단지 책임 운영 주체를 기존의 컨설팅 업체가 아닌 1차로 농업인으로 맡고, 지역 농협이 자체공급, 영농지도, 출하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인증농가 관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활용하고, 인증취소 농가는 3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없는 농가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저비용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가제조기술 확장에 노력하고 농업진흥청에서 검증

된 우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군 공모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공급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한다.

이밖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장성출장소 설치를 건의하고, 지역 농협과 유통업체, 농업인,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김용희기자 yongho@



## 담양 11공수여단, 설 성묘객 뺏길 지원

담양의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이 올 설에도 어김없이 주안호 일대에 설 성묘객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지역의 식수원 보호차원에서 유람선 운항 전면 금지로 성묘객이 제한되는 성묘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올해로 23년이 됐다.

특별 수송팀을 가동했다. 30여명으로 편성된 특별 수송팀은 7인승 4척과 아웃모터, 구명조끼 등을 동원, 성묘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 호평을 받았다.

수물지구 성묘객 뺏길 지원은 1179 부대가 순천시와 연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대민 봉사활동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순천 주안호 수물지역에서 성묘객 지원을 위한 특별 수송팀을 가동했다. 30여명으로 편성된 특별 수송팀은 7인승 4척과 아웃모터, 구명조끼 등을 동원, 성묘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제11공수특전여단은 성묘객 수송지원 외에도 지난 1983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및 한방진료, 마을방역작업, 바다 및 주안호와 담양호 쓰레기 제거작업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명절을 맞아 부대주변 무연고 묘지 별초와 함께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도 나섰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강진군, 농기계 지원사업 개선

### 소형·중대형 구분 '투트랙 방식'

### 콤바인·트랙터 1000만원까지

강진군이 매년 실시해 왔던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형태를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1000만원 미만 농기계는 최고 500만원까지, 1000만원 이상 농기계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갈수록 농촌의 부녀화 및 노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의 대형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군은 올해부터 소형과 중·대형 농기계를 구분해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의 정책을 전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3일부터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소형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 400만원 이하로, 발착을 위주의 농기계를 말하며, 주로 고령농가와 부녀자 및

농노들에게 지원하고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대형 농기계 중 중형농기계는 4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 농기계를 말하며,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3000만원 이상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 면적, 대농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형 농기계는 도비 사업, 중·대형농기계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여만원으로 그 중 도비 사업은 3억5000만원, 군 자체사업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오리고기 떡국' 맛있어요

강진군 강진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3일 점심으로 '오리고기 떡국'을 시작하고 있다. 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지역 닭·오리 농가들을 돕기 위해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3일 점심으로 '오리고기 떡국'을 시작하고 있다. 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지역 닭·오리 농가들을 돕기 위해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3일 점심으로 '오리고기 떡국'을 시작하고 있다. 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지역 닭·오리 농가들을 돕기 위해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정남진장흥 전통예술 보존회' 설립

장흥지역 전통예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법인 '정남진장흥 전통예술 보존회'가 설립됐다.

최근 장흥문화원에 설립된 '정남진장흥 전통예술보존회(이사장 김희웅)는 장흥지역 문화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예술을 계승, 보존,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있다. 앞으로 전통예술보존회는 장흥지역 전통의 관소리, 고백, 무용, 기악, 가야금병창과 국악 전통예술인 발굴육성으로 전국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위한 연구·조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예술보존회는 1차로 한국 근대 음악사에 선 구자인 최옥삼 가야금 병창에 대한 자료발굴 작업에 나서는 한편 올해로 16회째 이어지는 '장흥전통가무악 국제제전'을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흥=김용희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순창 구립면에 '농기계 임대 분소' 설치

순창군은 3일 "원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를 위해 유등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립면 소독개발시험포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해 중앙공모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위한 국비 5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군비 6억원을 합한 총 1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내용은 농기계 임대장비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 및 관리 장비

146대 구입 등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까지 42기종 39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177대를 지역농업인들에게 임대했다.

순창군 상치면 둔전리 최경식(63)씨는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를 위해 먼거리를 가야 해서 불편했다"면서 "앞으로는 구립면 소독개발시험포 분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동시간이 단축돼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8.4% 인상

전북도내 시내·농어촌버스의 요금이 3일부터 평균 8.4% 인상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채택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평균 8.4% 인상안을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1년 12월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전주의 일반석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으며, 군산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익산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

또 정읍, 남원, 김제의 일반석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의 일반석과 좌석버스 모두 1300원으로 인상됐다. 도내 버스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평균 36%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도는 이용객의 부담 완화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 도내 가계대출 증가율 전국 최고

### 2007년 이후 17조원으로 꺾춤...매년 10%씩 급증

### 주택 자금 수요 탓...부동산 경기 부진뎀 가계 위험

전북지역 가계대출 누적 증가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2013년 전북지역 가계대출 누적 증가율은 총 73.5%로 전국 최고였으며 평균(43.7%)보다 30%포인트가량 높았다.

금역으로는 2007년 10조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10%가량씩 늘었다. 이 기간 가계 대출 증가율은 전북에 이어 경남

(66.7%)과 울산(59.6%)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110.8%, 기타 대출이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북지역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도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매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확대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07~2012년 도내 주택가격은 33.8% 올라 전국 평균(17.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11년 이후 전주 서부 신시가지, 전북혁신도시 등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2007~2010년 연평균 70만㎡에 그쳤던 주거용 건축착공 면적은 2011~2013년 170만㎡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도 대출 증가율을 높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의성 한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은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단기적으로 부실화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인기

순창군이 이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이동건강교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자기수치를 알려주고, 운동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이 이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이동건강교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자기수치를 알려주고, 운동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이 이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이동건강교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자기수치를 알려주고, 운동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단신

### 정읍경찰, 설 연휴 특별방범활동 5대범죄 큰폭 감소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3일 "설 연휴 특별방범활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대범죄가 3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은 지난 달 20일부터 2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경찰 1118명과 협력단체 직원 749명 등 1861명을 동원해, 관내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주변과 정읍역, 터미널 등에서 범죄예방에 나섰다. 특히 총전식 자전거(시가 110만원 상당)를 절취한 피의자를 주변 CCTV 관독해 순찰 중 검거, 피해품을 회수했으며, 국도를 배회하던 치매 환자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도내 섬 귀성객 수 작년보다 21% 증가

올해 설 연휴에 전북지역 섬을 찾는 귀성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닷새간 5개 향로의 여객선을 통해 선유도와 위도 등의 섬을 찾은 귀성객은 412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402명에 비해 21%가 늘었다. 격포~위도 향로의 귀성객이 2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개야도 향로 724명, 군산~선유도 향로 693명, 군산~말도 향로 2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고창군은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고 현수막 등을 수거해오는 사

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등에 게시 또는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로,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1000원, 벽보는 10~50원, 전단 10원씩 계산해 월1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전주시립도서관, 시민대학수강생 모집

전주시 평생교육원 전주시립도서관은 2월 "2014년도 전주시립대학수강생을 오는 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대학은 관내 8개 도서관과 서곡문화관의 모퉁이작은도서관에서 독서논술, 북아트, 심리치로, 동화구연 등 독서, 자녀교육, 예술, 교양의 4

개 분야에서 장·단기 과정으로 23과목 27개반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민대학은 전년도 수강생의 호응도와 관심이 높았던 시낭송, NIE활동, 논어산책 등 도서관 강좌를 확대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